



[산업]
현대차그룹
벌집구조
미래도시 청사진
08

창간 20년
since 2002



Economy
매일 아침, 나를 키우는 메트로

코스피 2293.61 (+25.21) ↑ 코스닥 695.33 (+7.70) ↑

금리 (국고채 3년) 4.185 (+0.073) ↑ 환율 (원·달러) 1424.30 (+2.80) (31일) ↑

7% 초고금리 시대… 곳곳서 ‘제2 금융위기’ 경고음

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
年 4.970~7.499% 수준

11월 빅스텝 단행시 年 8%
환율 20%↑ 코스피 33%↓
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

시중은행 주요 대출 금리 상

단이 모두 7%를 넘어서면서 ‘초
고금리 시대’가 개막했다. 금융·
부동산·주식시장 등 2008년 글
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황이 유
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안
감이 커지고 있다.

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
보·전세·신용대출 등 시중은행
주요 대출 금리 상단이 모두 7%
를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금리
7% 시대인 상황이다.

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은행
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.970
~7.499% 수준이고 주담대 혼
합형(고정형) 금리는 5.360~7.
431%로 집계됐다.

신용대출 금리(1등급·1년) 역
시 5.953~7.350%, 전세자금대
출(2년 만기) 최고 금리도 7.
248%까지 오르면서 7% 중반대
로 치솟고 있다. 시중은행 7%대
금리는 2009년 이후 약 13년 만
이다.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
사태로 금융 경색이 심화됐던
2008년 말 8%대까지 치솟았으나
가 이후 금리가 하락해 2009년
7%대로 내려왔다.

시장에서는 금융위기가 왔던
2008년 8% 금리가 코앞으로 다
가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.
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
월에 기준금리를 연 2.5%에서
3.0%로 0.5%포인트(p) 인상했
다. 올 4월, 5월, 7월, 8월에 이어
10월까지 사상처음 다섯차례 연
속 금리인상이다.

11월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빅
스텝(기준금리 0.5%p 인상) 가
능성이 언급되고 있다. 미국 중
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
준)와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
서다.

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0% 수
준에서 3~3.25%까지 올린 상태
로 한국은행과 다르게 회의가 2
번 남아있어 연 4%를 넘어 설 것
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.

한은 금통위가 금리 차이를
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빅스텝
을 단행 할 경우 2008년 금융위
기 당시 연 8% 시대에 돌입하게
될 전망이다.

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
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
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.

2008년 당시 연준은 2년 1개월
간 기준금리를 4.25%p 올리면
서 연 5.25%를 기록해 금융시장
에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됐다.

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는 우리
나라까지 피해를 주면서 직격탄
을 맞았다. 당시 원·달러 환율이
급등해 1550원까지 상승했고,

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은 40%
이상 폭락했다.

현재는 원·달러 환율 1430원
으로 1년 새 20% 상승했고, 코
스피지수는 작년 최고가 대비
33%나 하락했다. 서울 아파트
값은 최근 주간기준 0.28% 하락

하면서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
폭으로 떨어졌다. 또한 10년 만
기 국고채 금리는 연 4.632%로
2011년 3월 8일(연 4.68%) 이후
최고치(채권값 최저)를 기록 중
이다. 〈6면에 계속〉

/이승용 기자 lsy2665@metroseoul.co.kr



이태원 참사 현장 합동감식 진행
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
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
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를 현장을 합동감식하기 위
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.

/뉴스

“이태원은 행정참사”… 지자체·경찰 대처에 구멍

‘주최측 없는 행사’ 이유로
대응 매뉴얼 없이 사태 악화

지난 29일 벌어진 ‘이태원 압
사 참사’의 수습이 본격화하고
있는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
체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
커지고 있다. 좁은 지역에 과도
한 인파가 몰릴 것임을 충분히
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유관 기
관들이 유기적 협조없이 대응책
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
드러남에 따라 전형적 ‘행정참
사’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

31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

르면 경찰은 이번 대규모 인파
밀집 상황이 주최측이 없는 비
정형 행사임을 이유로 별도 대
응 매뉴얼도 없이 상황을 관리
하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
드러나고 있다.

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
간담회에서 이태원 헐리원 행사
대응과 관련 “주최측이 분명한
행사의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
와 경찰, 소방, 의료 등 유관기관
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대응해
왔는데 이번처럼 주최측이 없는
경우 경찰의 관련 매뉴얼은 없
다”면서 “이번 사고는 (대응에)

미흡한 점이 있다”고 말했다.

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29일 당
일에 불법 단속 및 범죄 예방과
교통 소통관리를 위해 경력 137
명이 현장에 배치됐다고 설명했
다. 2017~2019년 이태원 헐리원
축제때는 평균 30~90명 정도를
배치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
많이 투입했다는 것이지만 야외
마스크 해제 직후 열리는 행사에
인파가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점
을 고려했다는 언급은 없었다.

용산구는 지난 27일 오후 2시
헬리원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
를 갖고 특별 방역, 안전사고 예

방, 거리 청결 확보 등을 1시간
가량 논의했다. 회의에는 용산
경찰서장, 용산소방서장, 이태
원관광특구연합회부회장 등 20
여명이 머리를 맞댄 지난해와
달리 구청내 민원대응반, 방역
추진반 등 관련 11개 부서장만
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용산구측은 “27일부터 29일까
지 28개조, 직원 150여명을 동원
해 비상근무에 나섰다”고 밝혔
지만, 경찰 등과의 유기적 협
조가 부족했던 것으로
나타났다. 〈2면에 계속〉

/김현정 기자 hjk1@

버스터비 **YAP**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

▲尹지율, 35.7% 16주만 30%대 중반
… 부정 평가 61.7% /사진 뉴시스

▲ 외교·국방장관 “日관합식 참가, 안보·
국제관계 고려해 판단”

▲ 대통령실 대상 국감, 국가애도기간 이
후로 미뤄질 듯

▲ 감사원 “서해 공무원” 사건 관련 국정
원 감사 착오 없다”



▲ 서영석 의원, 당원들과 술자리 후 폭풍
확산… “단톡방서 우려 목소리”

▲ 한미 연합 공중훈련 ‘비질런트 스톰’
시작 /사진 뉴시스

생산·소비·투자 또 ‘트리플 감소’

불확실성 커져 경제둔화 조짐

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통계청이 31일 발표한 ‘9월 산
업활동동향’에 따르면 지난 달
전산업 생산(계절조정·농림어업
제외)은 전월보다 0.6% 감소했
다. 7월(-0.2%), 8월(-0.1%)에
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
졌다. 〈2면에 계속〉

/세종=원승일 기자 won@